

佛敎 第三十六號

北地區를 直割하고 南陸, 平壤, 平山(平壤의 約三分之一)만이 錫蘭王의 治下로 되였으며 莫大社年貢을 都督部에 바치게 되였다.

이와가치 全島가 印度族의 勢力下에 들게 되며 征服者의 宗敎인 印度敎가 西北一帶에 蔓延되고 「포시」에는 雄大한 印度敎寺院이 建立되고 國民은 印度敎僧侶에게 供養을 드리거나 出家하게 되였다.

佛敎가 渡來한 以後 國宗이 되야 國內에 一介의 異敎徒 잇습을 天지 못하겠으니 第五六世紀以來 國方衰退함을 寺師 外交政策上 錫蘭王의 多分이 印度王家

와 結婚하여 印度敎神의 崇拜가 內宮에서는 50年前부터 잇는 듯하나 國民信仰과는 平交涉이 잇섯스며 九世紀初에 海岸에 漂着한 印度敎主神毘紐(Śiva) (像을 「포시」에 迎入한 일이 잇섯스나 亦是民間信仰의 對象으로 가아니였스며) 세나나 二世時에 印度敎가 蔓延됨으로 王이 嚴禁하고 國境에 番兵을 두어서 異敎의 渡來를 監視하였으니 이제 印度敎가 都督部의 後援下에 公然히 宣傳되야 佛敎의 獨尊地位를 占據하기 始作하니 印度敎가 將來 本島 宗敎界의 第二黨의 地位를 獲得할 基礎를 이時代로부터 築키 未한 것이다 (未完)

壬辰兵亂과 朝鮮僧兵의 活躍 (續)

素 荷

七

前에 逃한 바와가치 平壤에서 丹徒에서 奮戰한 明軍

及 義軍(僧軍)은 平壤에서 倭軍을 克服한 後 松都를 復하고 一舉에 京城을 還收한 지라 西山大師께서 勇士百人을 率하고 大駕를 迎하사 京都에 還御

케 하사 었다. 이러한 勝利의 原因은 明軍의 應援이 잇습은 一稱의 原因이라고 하겠지마는 가장 重大한 原因은 義勇爲하야 奮起한 僧軍의 國內에서 이러한 奇蹟이 있다고 하겠다. 왜그러나 하던 아모리 勇敢한 應援이 잇드래도 自身이 勇敢하지 못하면 敗하고 마는 事蹟이다. 李朝가 後代를 通하야 西山大師께서 救世의 主를 상제됨도 奇蹟이 잇는 일이다. 戰後에 明贊贊 李如松이 가 西山大師의 帖을 奉하야 嘉贊贊 文中에 「爲國討賊 忠誠貫日 敬仰不勝」이라고 한 文句가 잇스며 다시 다음과 파가 온 詩를 贈呈하였

다. 「無意圖功利 專心學道仙 今聞王事急 搥搥下山 顛。」

그리고 李提督과가치 諸將官도 爭先하야 帖을 送하고 贊辭를 呈하였다.

그런데 國朝實錄에 「僧軍은 비록 能히 接戰치 못하얏스나 警備에 善하고 力役을 勤하얏습으므로 諸道「此에 賴하나」라」함을 보지대 儒者들이 排佛의 野心으로써 僧軍의 戰功을 掩蔽한 것이 明了하다. 만일 國朝實錄의 말과가치 僧軍이 接戰하지 못하얏습

것가 되면 明將이 이와가치 西山大師의 贊辭를 바칠理가 萬無하며 是는 「爲國討賊」이라는 말이 矛盾이 아닐까 設使僧軍의 戰功을 아모리 抹殺시키라 한 李提督으로부러 僧軍의 戰功을 贊辭한 法帖이 現今 妙香山에 保存되어 잇스니 었지 하라?

戰功을 이 奉後 西山大師께서는 「臣의 年 八十에 垂하야 筋力이 다한 지라 請願대 軍事를 弟子惟政(松雲)及 處英(雷默)의 代屬하고 印綬를 바치고香山의 舊樓로 도라가겠노이다」하고 表를 바치시엿다. 그렇으므로 宣宗께서도 此를 許하시고 「國一都大禪師, 神敎都總攝 扶宗樹敎 普濟登階 尊者」라는 二十一字長文字의 號를 賜하시엿다. 이와가치 賜號는 尊敬의 極致를 表한 것이다. 支那에서도 明代의 初에 二字號, 四字號, 乃十六字號의 制度를 定한 것이 잇스나 이와가치 二十一字의 長文字의 號는 支那에서 卽例를 볼 수 잇는 賜號이다. 말하자면 支那及日本에서 例를 볼 수 잇는 絶倫拔例의 賜號라 하겠다.

其後 西山大師께서는 高齡八十五時에 自家의 影幀背後에 「八十年前渠是我 八十年後我是渠」의 句를 題하시고 跏坐하사 涅槃하실 때까지 巖가 더욱더

佛敎 第三十八號

